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⑭ 사형수 김선자

사형수 김선자는 억울하다

사형수 김선자를 아는 이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초 여성 연쇄살인범' '아버지와 친동생을 살해한 희대의 패륜범'으로 기억한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방송서 자주 언급되며 등장하는 김선자. 나는 김 씨만큼 무고하다며 억울해하는 사형수를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

1990년도 쯤 서울 구치소를 찾아간 나는 사형 집행이 확정됐다는 한 수감자를 만났다. 김선자였다. 그간 만났던 사형수들은 "잘못은 했지만 사형당할 정도는 아니다" "억울한 나를 좀 살려달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느 때와 같이 교화 법문을 했다. 그런데 김선자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나를 대했다.

나는 김 씨를 만나자마자 사형수에게 주로 하는 〈금강경〉의 마지막 대목을 읊조렸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란 4구 경구는 실제 사형 집행 현장에서 하는 바로 그 대목이었다. 삶이라는 건 한 마당 꿈이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가만히 듣던 김 씨는 엉뚱한 소리를 던졌다.

"저는 곧 나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김 씨의 말과 웃음은 과장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명백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순간 나는 '아까 들었던 사형수가 이 사람이 아닌가? 내 눈 앞에 있는 김선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맞는가'란 물음을 떨칠 수 없었다.

김영삼 前 대통령 정권 말기, 그 때만 해도 사형 구형부터 집행까지 일사천리였다. 바로 내일, 아니 이 자리를 뜨면 집행을 진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사람 같지 않았다.

너무나 황당해 김 씨에게 다시 물었다. 집에 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묻자, 김 씨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가지요. 난 집행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형 당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어주고 나오니 나는 얼이 다 빠지고 말았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교도관에게 김 씨가 정신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교도관은 그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는 사람마다 한결 같이 오늘과 같은 주장을 고수했다는 답을 할 뿐이었다. 교도관은 "그 여자, 진심이에요"란 말까지 덧붙였다.

여사를 나온 뒤 나는 김 씨의 완강함이 하도 이상해서 그에 대해 알아봤다. 김 씨는 채권자, 아버지, 여동생 등을 독살한 혐의로 1988년(49세)에 경찰에 검거됐다. 살인 5건, 살인미수 1건을 저지른 김 씨는 재판 끝에 1989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예상 밖의 태도로 '사형수의 억울함'을 고집하는 김 씨의 이야기에 나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김 씨가 한 말이 도저히 거짓말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을 여러 차례 제보한 끝에, 실제로 김 씨에 대한 방송이 전파를 탔다.



검거된 김선자(사진 왼쪽아래)가 나온 뉴스화면 캡쳐.

친부 · 여동생 독살 혐의
사형수로서 집행대기 중
"죄 없어 집에 간다"고 주장

보도, 교정 지시 있었지만
대전 교도소로 이감, 형 집행
여전히 싸이코패스 대명사로

어디까지나 당사자 김 씨와 교도관의 말만 듣고 한 제보였다. 하지만 제작진은 치밀한 탐사취재로 현장서 증거들을 수집했다. 개략적인 문제제기로 시작됐지만 경찰, 재판부 등 각종 관계자들과 만나가며 몇 개월을 고생해 1시간짜리 추적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선자 편이 방영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방송이 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방송은 '사형수 김선자가 억울하다'는 심증적 반증이기도 했다.

억울함은 알려졌지만 풀리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잠깐이었고, 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운명은 여전히 집행대기 상태 그대로였다. 고심 끝에 각별한 사이였던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배 前 장관은 김 씨의 억울함에 대한 내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

이후 대법관 출신 현직 법무부 장관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배 前 장관은 김 씨와 방송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장관은 방송을 보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배 前 장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역시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김 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장관 지시가 교정본부 측에 직접 내려졌다는 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서 수십 번 재판을 거쳐 이미 대법원 사형 확정이 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다. 억울한 사형수 김선자는 대전 교도소로 이감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 이후 김선자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경검찰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대전교도소로 수감된 이들은 김 씨를 비롯해 대중에게 잊혀졌다.

김 씨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방법은 재심뿐이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형수의 재심 신청은 즉시 기각된다. 사형수의 재심 허용은 전례 없는 일이다. 결국 김 씨는 사형 선고 8년이 지난 1997년 12월 말, 다른 22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처형됐다. 사실상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

김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매체들이 김선자를 악독한 사이코패스의 대명사로 끊임없이 이용한다. 텔레비전서 김 씨를 문득 마주할 때마다 영 마음이 편치 않다. 학교를 못 다닌 김 씨는 글을 몰랐다. 사형수 김선자는 그럴만 한 죄를 지은 것이 맞는가. 억울함에 울부짖지 않던 김 씨의 웃음은 잊으려고 해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⑬ 서옹 스님 · 보문사 보살

스님을 뵙고 말씀을 받들다 보면 '꽃 처방(염화미소)'을 받는다. 음성엔 활기가, 웃음엔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모든 곳이 참되리라(隨處作主, 立處皆眞).' 고 일러 주고 쥐어 주셨다.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실이 진리임을 말씀하시곤 일상 속에서의 참선을 노래하듯이 들려주셨다. 그동안 마음의 그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았다. 지금도 비록 천국같이 평화로운 곳에 늘 다리 내리고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달콤 쌉싸름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여기가 내 자리라고 앉아 보고 있다.

"산에서 들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꽃, 혹시 이름 아시나요?"

살랑이는 바람에 묻는다.

나의 첫 번째 성지순례길에 옆자리에 앉으셨던 보살님이시다. 오고가며 나눈 대화를 통해 나는 이 날 마음이라는 단어를 선물 받았다. 지금까지 과장도 소홀함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보살님도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도 내 속마음의 보폭과 비슷하기를 바란다.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보살님 뵙고 싶습니다. 그날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 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